

슈티르너: 유일자와 그 소유

막스바진스키

1907년 5월

차례

I.	3
II.	4

I.

벤자민 R. 터커는 1845년 순진한 독일 사상가 카스파르 슈미트가 막스 슈티르너라는 필명으로 쓴 『유일자와 그 소유 Der Einzige und sein Eigentum』을 번역 출판했다. 이 책은 스티븐 T. 바잉턴이 엠마 헬러 슘과 조지 슘의 도움으로 번역하였다. 터커씨는 그가 쓴 서문에서 “오류와 불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그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그는 고 J.L. 워커가 주장한 바, 슈티르너가 개인주의 적우상화를 수용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슈티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떤 한 대의로부터도 비롯하지 않는다.”¹ 그리고 개인주의 적아나키스트들은 슈티르너로부터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미 슈티르너의 탄생과 죽음의 장소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베이루스와 베를린으로 보내고 있다. 그들은 신실한 순례자들처럼 베이루스로 향하고, 음악의 천재 리하르트 바그너를 흡모한다. 조만간 슈티르너의 숭배자들은 베이루스를 감염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우연히도 베이루스의 호텔 숙박료를 인상시킬 것이다. 가이드북 출판자들은 이 예언서를 잘 활용할 것이고, 여행객들을 위한 슈티르너 사원 같은 것을 건설할 것이다.

무해한 부르주아 사이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론적으로 개인주의 적아나키스트인 피에르 조지 프프루동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파리의 2월 혁명에 대해 “싫건 좋건, 우리는 불례센인들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아마도 J.L. 워커 박사는 슈티르너의 책 서문에서 1848년의 “소위 혁명 운동”에 대해 거만하게 언급할 때 이리한 항복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 저명한 박사가 죽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프러시아를 보고 혁명이, 최소한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는, 봉건주의의 잔재를 쓸어낸다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타협 노선을 택하고, 결과적으로 반동을 초래한 것은 혁명가들이 아니다. 오히려 소극적 저항의 대전사들이 반동을 초래했다. 터커나 마카이 같은 자들 말이다.

워커 박사는 니체가 슈티르너를 읽었고, 아마도 슈티르너의 사상을 도용하여 스스로를 치장하면서도, 세상이 그 표절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슈티르너를 언급하지 않았다 말하면서 일말의 의가책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워커 사도는 그의 신과 같은 주인에게 상당히 집착한다. 그는 “니체는 수백 명의 저자들을 언급한다. 그가 모든 것을 읽었으면서, 슈티르너를 읽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의심한다.

이러한 오명은, 심리학적이 유들로 지울 수 있다.

그저 작들 속에서 니체는 스스로를 진실성의 신도라 칭한다. 그는 성실함과 진실함을 갈망한다. 그 스스로를 다른 이들에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니체는, 슈티르너가 그러했을 것처럼, 이러한 것을 꾸짖을 것이다) 니체의 내적 성향과 순수함이 그를 진실한 인간으로 만든다. 니체가 “Ich wohne in meinem eignen Haus”²라고 자평할 때,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동료 저자들보다 더 정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니체가 왜 표절을 해야 하는가? 니체가 아이디어를 훔칠 필요가 있었는가? 니체를 죽인 것은, 그 아이디어의 과도한 충만함인데?

이에 더하여, 니체가 그 영웅적 행보를 더 할 수록, 그는 더욱 고독해져 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도록하자. 그는 염세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넘쳐흐르는 재능을 들어줄 수 있는 귀도, 잡아줄 손도 없었기에 고독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 정신적 고립에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는 그의 수많은 저작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그는 조화로운 합의를, 그의 본성과 어울리는 이념과 감정을 위해 과거와 현재를 탐색했다. 그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얼마나 열렬히 숭배하였는가! 그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발견함에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니체는 그의 후기 작품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단호한 적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니체가 쇼펜하우어라는 사상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에 대해 “보라. 누구도 그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라고 쓴 바 있다.

니체가 슈티르너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는 그가 스탑달과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하여 그러했듯이, 슈티르너에 대해 적합한 인정과 감사를 표했을 것이다. 특히 니체가 친밀한 영혼이라 생각한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 니체는 그가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그 어떤 교과서보다 더 많은 인간 심리를 배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니체가 그 학술적 영감을 얻은 근원을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기에 슈티르너와 니체 간에 큰 학술적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둘 모두는 개인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둘 모두는 개인이 모든 “신성함”에 맞서, 모든 신성 불가침의 자기 부정에 맞서, 모든 기독교적·도덕적 청교도주의에 맞서 개인의 무제한적 진보를 긍정한다. 하지만 니체의 개인주의는 슈티르너의 개인주의와 다르다.

¹ 바잉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오역했다. “나에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All things are nothing to me)”

² 직역하자면, “나는 내 집에 산다.”

슈티르너의개인주의는울타리를치고스스로를그안에가둔다. 울타리안에는너무도추상적인내가, X-ray 아래에있는것처럼개인으로만한정되어, 울타리바깥을향해“내벽을넘지마!”라고울부짖는내가배회한다. 카를마르크스는슈티르너의〈유일자〉가처음본것은좁은베를린거리쿠페르그라벤의빛이라며비꼬았다. 악의로가득한비판이었다. 하지만슈티르너의개인주의가완고함과경직성으로부터자유롭지않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반면니체의개인주의는의기양양한슬로건이자전투함성이다. 무엇보다니체의개인주의는인간성과모든세상을포용하고흡수함으로써풍요로워지고, 삶에기본적인힘을침투시킨다.

하지만왜이두위대한인물들을비교해야하는가? 차라리 M. 메서 (M. Messer) 씨 (슈티르너에관한에 세이를쓴바있다) 가인용한괴테가그와쉴러의관계에대해한말말을반복하도록하자. “이처럼중대한사람들을가졌다는데감사하라.”

순수하고단순한개인주의의대변인들이다른개인들, 이를테면평범한도덕주의자들에게짓궂고옹졸하다는사실은터커의서문이, 슈티르너의연인인마리댄하르트에대하여극도로무신경하게서술했다는것으로증명된다. 슈티르너는『유일자와그소유』를연인에게헌정했다. 이를맥케이와터커는다음과같이검열한다.

“맥케이의조사는마리댄하르트가슈티르너와어떤것도공유하고있지않다는사실을밝혀냈다. 그리고그렇기에슈티르너는그녀에게어떠한존중을바칠필요도없다. 그렇기에나는슈티르너의헌정을역사적정확성의측면에서다시쓰기로결정했다.”

터커가개인주이나〈유일자〉를터커주의와혼동한것이틀림없다.

막스슈티르너와마리댄하르트가당대에서로어떠한공통점을가지고있는지는, 슈티르너-댄하르트가터커-맥케이보다더잘아는것이아닌가.

하지만이문제를너무심각하게받아들이지말자. 슈티르너는그승배자들과문학적집행관들때문에정리할수는없는범주에속한다. 트라우벨씨와「더컨서베이터」가아직내가윌트휘트만을경멸하게하지는못한것처럼,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은아직내가슈티르너를혐오하게만들지는못한다.

번역의심대한오류는슈티르너시기독일의학술적환경을제대로묘사하지못하게한다. 미국의독자들은여전히슈티르너가지향하던조건과성격에대해무지한채로남아야한다. 그리고이것은무엇보다코뮌주의자들에관하여는정직하지못하다. 슈티르너는빌헬름베이틀링과논쟁을벌였다. 그리고베이틀링의코뮌주의는크로포트킨이나레클루스가주창한현대코뮌주의와외형적으로라도닮지않았다. 현대코뮌주의는생물학, 심리학, 경제학에근거한세계관의발명이었다.

영어판『유일자와그소유』는번역자가정확하고완성된작업물을내놓기위한노력을이토록해태할수있다는사실로놀라움을준다. 영어판『유일자와그소유』는너무나도문헌학적인반면, 너무나도비직관적인작업물의사례라하겠다. 슈티르너자체도이에책임이있다. 그는모든망령들에대해저항하지만, 동시에추상의명수이기때문이다.

II.

슈티르너의『유일자와그소유』는혁명적인작품이었다. 그저작은압제받고대상화된이들의이름으로, 그“신성한원칙들”에대한개인의반란이었다. 슈티르너는폭압적세력의형이상학을드러낸다. 루터가 95 개조반박문을비텐베르크대학의문에게시한것처럼, 슈티르너의개별자적독립성의선언은도덕, 가족, 국가등모든“신성한”것에도전장을던진다. 슈티르너는“불가침의기구”의가면을벗기고, 그가면뒤에는망령들만이있음을드러낸다. 신, 영혼, 이상, 진실, 인간성, 애국심모두는슈티르너에게가면에불과하고, 그뒤에는칸트적정언명령들이개인을억압하고, 조련하면서개인의모든주도권·자주성·소유를빼앗는다. 이모든것들은스스로가훌륭한것이라주장하고, 모든부분에서세련된것이라주장하며존경과숭배를요구하고, 개인이그앞에무릎꿇을것을요구한다.

이모든것에저항하는것은“나”의개별성과유일성을통한반란이다. 이반란은존중과복종을억제한다. 이반란은“영원불멸한진실”의잔재에서그발을떨쳐일어나, 이상과개념이라는주인들로부터개인을해방할것을부르짖는다. 이로써자유롭고, 자주적인이고개인들의주인이될것이다. 개인은더이상“선”으로부터고통받지도, “악”을피하지도않을것이다. 모든개인은종교도, 도덕도, 국가도없이살아갈것이다. 정의, 올바름, 일반선의개념은더이상개인을옥죄지않을것이다. 무엇보다, 모든개인은이개념들을스스로의관점에서사용할것이다.

슈티르너에게세상의중심은에고다. 에고가바라보는곳에, 에고의세상이탄생하여그힘을발산한다. 에고가온세상을전용할수있다면그로부터그스스로의올바름이확립된다. 에고는세상을독점할것이다. 슈티르너

는한개인의자유가다른이들의자유로부터제약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말하는것이아니다. 슈티르너는개인의자유와개별성은오직그힘에의해서만제약된다고주장한다. 나풀레옹이인류를축구공으로사용했다면, 왜인류는반란하지않았는가?

슈티르너에게민주주의자들과자유주의자들이요구하는자유는, 거지에게던져주는동냥일뿐이다.

J.L. 위커의서문은슈티르너의이러한정신을완전히오해하고있다. 그는“슈티르너를통해우리는정치적자유의철학적근간을얻을수있다”고언급한다. 슈티르너는정치적자유를경멸할뿐이다. 그는정치적자유를권력있는자가권력없는자에게주어준의심스러운호의로바라본다. 슈티르너는유일자로써, 정치적자유를요청하는이들을꾸짖었을것이다. 그는스스로의힘으로그들에게속하는것을가져가는대신인권을요청하고자유와독립을구걸하는자들을비웃는다.

슈티르너의책에서가장진솔한부분은, 정치적자유에대한비판으로구성되어있다. 다음인용부분에서이것이잘드러난다.

“정치적자유”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그것을국가와그법으로부터개인의독립이라이해해야하는가? 아니다. 오히려우리는그것이국가와국법에대한개인의복종이라바라본다. 하지만왜‘자유’인가? 아마모든사람이더이상국가로부터분리되지못하고, 국가와직접적이고즉각적인관계를맺고있기때문일것이다. 모든사람은이제시민이고, 왕을포함한다른이의신민인것이아니라‘국가의최고주권자’라칭해지기때문일것이다.”

“정치적 political 자유는국가 polis 가자유로움을의미한다. 종교의자유는종교가자유로움을의미한다. 양심의자유는양심이자유로움을의미한다. 하지만, 이모든것이내가국가와종교와양심으로부터자유롭다거나, 내가그것을치워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자유들은나의자유가아니다. 오히려나를지배하고예속하는권력의자유다. 이자유들은국가·종교·양심과같은전제군주들이자유롭다는것이다. 국가·종교·양심, 이전제군주들은나를노예로만든다.”

슈티르너는반도덕적이고그만큼반민주적이었다. 그는루드비히포이어바흐가말하는바“신을인간으로체현하는것”이도덕적속박으로부터개인을자유롭게할것이라믿지않는다. 이것은단지도덕적전제주의를종교로대체할뿐이다. 신은노망이났고활력을잃었다. 인간을복종시키기위해서는더활력있는것이필요했다.

인간에“신의개념”을체화함으로써도덕적명령은정신적요체로변모한다. 그리고이로써인간을외적인것이아닌스스로의정신에예속시킨다. 그리고이로써이전의외적노예제가비도덕적이되는것을두려워하는도덕적공포에근거한내적노예제로대체된다. 우리는외적신으로써의도덕에대하여반란할수있다. 하지만도덕이인간과등치된다면, 도덕은더이상근절할수없다. 신의인간화를통해신은최종적으로승리한다. 인간이외부세력의노예제로부터자유를얻고, 그“내적도덕적필요”에더욱예속된노예가되는것이니말이다.

모든선한기독교인은그가슴에신을모신다. 모든선한도덕주의자들과청교도들은가슴에도덕적경찰관을모신다.

자유사상가들은개인적신을철폐한후신의도덕적세균을흡수했다. 이로써그들은도덕적역병에대한면역력을확보했다. 자유사상가들은자랑스럽게도그들이신의도움없이도도덕적이될능력을가졌다고주장한다. 그러면서그들은이도덕이인간예속의사슬을만들고있다고는의심조차하지않았다. 도덕적정언명령이인간을지배자에게더예속할것이기에, 지배자들은행복하게도신에대한믿음을버린다. “더럽게도지독한양심”이각인간의뼈와피에새겨지고흐르는이상, 예속은보장된다.

이연결에대해슈티르너는다음과같이말한다.

“자기포기의피해자를마주하지않을방법은없는가? 내맞은편에앉아있는여자아이는지난 10년간그녀의영혼을위한빌어먹을희생을했을지도모른다. 저풍만한몸매는죽을만큼피곤한머리를감춘다. 그녀의창백한뺨은어린날의혈기를배신하고있다. 저불쌍한어린아이의심장에얼마나자주열정이몰아쳤을지, 젊은날의풍족한힘이그권리를요구했을지! 머리가부드러운베개에파묻힐때, 자연이그팔을파고들고, 피가혈관을돌고, 공상이눈에관능적으로맴돌았을지! 그리고여기에영혼과그외적인지복의망령이나타났을때, 저아이가두려워하고, 손을꽉쥐며, 고통받는눈으로위를바라보며기도했을지. 자연의폭풍은멈추고, 욕망의바다는평온해진다. 천천히피곤한눈꺼풀이그망령아래사라진삶을덮을때, 긴장감은그팔사이로몰래빠져나가고, 심장의활기찬파도가마르고, 접힌손은저항하지못하는가슴위에무력하게놓인다. “아아!”라는단말마와함께영혼이평안해진다. 이렇게개인은잠에빠지고다음날아침새로운전투와새로운기도로일어난다. 포기하는습관이열망의열기를식힌다. 그리고젊음의장미는그천국같은빈혈로창백해진다. 영혼은구원받았으니, 몸은사라지리라! 노래여, 비단이여! 너희가이창백한선함을얼마나괴롭혔는지보라. 한자유로운창녀가천명의처녀들의선을회색으로만들지니!”

이렇게개인을지배하는예속의사슬이하나하나떨어져나가고, 다시금그어느때보다강력한“신성한정언명령”이개인을휘감는다.

슈티르너는, 참으로 해방적인 작품을 만들었다하겠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에고는 이제 유일자가 된다. 하지만 그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지점에서 슈티르너의 철학은 단지 불충분한 추상에 불과해진다.

사회를 완전한 개인으로 분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반대의 것을 만들어낸다. 슈티르너의 삶 그 자체야 말로 개인이 현존하는 조건에 대한 고독한 전투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증명한다.

슈티르너는 모든 망령을 파괴한다. 하지만 슈티르너는 빛을 갚지 못한다는 물질적 필요에 휘둘렸다. “망령”의 힘이 그의 “유일자”의 힘보다 더 강했다. 슈티르너의 채권자들은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슈티르너는 자유 경쟁이 단지 아첨꾼과 식충이들에게 인공적 우월성을 제공하는 도박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슈티르너는 동시에 (그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소유를 박탈하여 모두를 거지로 만들 코뮌주의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어차피 어떠한 재산도 가지지 못하는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이 개인들은 그들이 소유와 재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그들의 “개별성”과 “유일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기에 거지가 되었는데 말이다.

우리 시인들, 사상가들, 예술가들, 발명가들의 삶이 왜 그리도 순교자적이었는가? 이 개인주의자들이 너무 나도 유일하고 유일자이기에 소유와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투쟁도 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그들은 그 개인성을 생계를 위해 파는 수밖에 없다. 우리 (코뮌주의자)들이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위선적으로 신념을 얹어 압하는’가? 왜냐하면 개인은 스스로를 소유하지 못하며, 참된 자신이 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실상 시장에 팔리는 자산이 되고, 타인의 소유를 불리는 도구로 전용된다.

사업체가 개인을 전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신문사에 슈티르너적인 유일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일터에서 유일자의 지적 능력은 출판사와 주주들의 부를 위해 팔려나간다. 개인 성은 사업 속에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³ 위에 놓인다.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을 희생한다. 이로써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즐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개별성이 호흡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폭력은 얼마나 무시한 것인가!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음식, 음료, 집에 대한 권리는 개인성의 상실 아래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소유가 없는 수백만의 개인성이 산업의 도구로 전용될 때에야 (옹색하게도) 주어진다.

슈티르너는 소유가 개인성에 반한다는 사실을 고아하게도 무시한다. 경쟁에 있어, 우리가 개별성을 배반하고 포기하는 것에 비례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무시한다. 아마도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된 일부만이 일정 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조차도, 그것이 상속자에 대한 개인성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특권은 명청하게도 다양한 선입견과 “개인성”과 같은 망령들로부터 비롯된다. 프티부르주아지와 졸부들의 개인주의는 “개별자”的 지평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좁힌다.

현대 코뮌주의자들은 슈티르너보다 더 개인주의적이다. 코뮌주의자들은 종교, 도덕, 가족, 국가만이 아닌 사유재산 역시 망령이라여긴다. 사유재산의 이름으로 개인은 예속된다. 오늘날의 개별성은 국가, 종교, 도덕의 종합보다 더 사유재산에 예속된다.

현대 코뮌주의자들은 사회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코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통해 경제적 조건 (생산, 분배) 가 조직되어야 하고, 이로써 그 자유와 개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조직을 통해 복종과 전제주의를 몰아내어야 한다. 이주된 조건은 개인이 소유나 생계를 위해 스스로 무릎꿇거나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코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근간을 건설한다. 나는 개인주의자이기에 코뮌주의자다.

슈티르너의 저작에서 ‘요구’라는 단어들을 사적 재산의 해소와 수용으로 바꾸어 낸다면, 코뮌주의자들은 슈티르너에 온전히, 진심으로 동의 할 수 있다.

개인주의와 코뮌주의는 함께 가는 것이다.

³ 역자주: 프로크루스테스 (그리스어: Προκρουστης) 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아티카의 강도로 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불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 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어서 죽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침대에 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바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말한다.(출처: 한국위키피디아)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막스바진스키
슈티르너: 유일자와 그소유
1907년 5월

kr.theanarchistlibrary.org